

조훈현 국수, ‘마한의 심장 영암’팀과 금의환향

영암군에 장학금 2,000만원 기부... 국립바둑연수원 영암 유치 기원 행사도

영화 <승부>의 주인공 조훈현 국수가, 출범 두 시즌 만인 ‘2024~2025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준우승의 역사를 쓴 ‘마한의 심장 영암’팀과 함께 금의환향했다.

마한의 심장 영암의 수석감독인 조 국수가, 2일 바둑팀과 영암군청을 찾았고, 감독과 선수단이 우승상금으로 마련한 인재육성기금 2,000만원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에 전달한 것.

마한의 심장 영암팀은 바둑 정규리그 4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준플레이오프에서 3위 ‘수려한 합천’팀을 3대2로, 플레이오프에서 2위 ‘원익’팀을 3대2로 차례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조 국수의 고향 팀임을 전국 바둑계에 알렸다.

영암팀을 응원하는 지역민들은 수석감독인 조 국수의 전성기를 재현했다는 평가와 함께 선수단의 선전에 환호를 보냈다.

고향을 찾은 조 국수는 “마한의 심장 영암팀이 준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암군의 전폭적 관심과 지지 덕분이다”고 인사했다.

나아가 ‘입신’의 경지라는 바둑 9단의 연륜이 담긴 이야기로 영암군민의 성원에 화답했다.

그는 “흔히들 바둑을 인생의 축소판이



라 한다. 악수가 변해 행운의 수가 되기도 하고 과욕을 부리다 대마가 몰사하기도 한다. 순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과 배움이 중요하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도전정신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달식에 함께 한 마한의 심장 영암 선수단에게는 바둑 스승이자 수석감독

의 애정 어린 충고로 들리는 말이었다.

동시에 국수의 금의환향을 지켜보는 영암군민에게는, 제자 이창호 기사에게 패배한 뒤 와신상담으로 재기에 성공한 영화 <승부>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만들었다.

한해원 마한의 심장 영암 감독은 “선수들의 노력과 헌신, 영암군민의 응원에 감사드린다. 이번 성적을 바탕으로 더 나은 팀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국수와 한해원 감독을 포함한 영암 바둑 선수단은, 인재육성기금 전달식을 마치고, 우승희 영암군수를 포함한 영암군민과 함께 손 펼침막을 이용해 국립바둑연수원 영암 유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23년 12월에 창단한 마한의 심장 영암팀은 그해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 연고지인 영암 이름으로 첫 출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조정은 장성군! 전국단위 조정대회서 준우승 ‘꽤’

제51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 여대·일반부 금1, 동2 획득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이하 장성군청 조정팀)이 전국 단위 조정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장성군청 조정팀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부산광역시 서낙동강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51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에 참가해 여대·일반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옥경 감독과 김미수, 유지현, 이수빈 선수 4명으로 구성된 장성군청 조정팀은 여대·일반부 경량급 더블스컬에서 7분 42초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서 중량급 더블스컬, 중량급 싱글스컬에서도 각각 동메달을 획득해 총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준우승에 올랐다.

김옥경 감독은 “포기를 모르고 노력해 온 선수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성군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뛰어난 성적을 거둔 장성군청 조정팀에 군민을 대표해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한다”면서 “선수들이 양질의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최혁의 조정시합·전지훈련 장소로 잘 알려진 장성호 조정경기장을 보유한 ‘조정의 메카’다.

장성/황해연 기자

함평군, ‘제12회 함평군수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성료

부산 사하구·광주 광산구 등 300여 명의 선수, 선의의 경기 펼쳐

전남 함평군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야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호남권 야구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함평군은 10일 “제12회 함평군수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함평야구장, 전남야구장, 함평-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대회는 함평군체육회가 주최하고 함평군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했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부산광역시 사하구청·전남 담양군청·경북 경주시 등 전국 14개 팀, 300여 명의 공무원 선수가 참여해 지역 간 교류와 스포츠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각 선수단은 4일간 예선과 본선 경기에

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결승전에는 부산 사하구청이 김제시청을 10대 6으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보령시청과 경주시청은 공동 3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신설된 마이너리그 우승은 고흥군이 차지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에 전국 공무원이 모여 승패에 상관없이 하나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호남권 야구 메카로서 야구 저변 확대에 더욱 힘쓰고, 스포츠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2030년까지 대동면 용성리 일원에 총 280억 원을 투입해 야구전용구장, 실내연습장, 스포츠클럽 등을 갖춘 ‘야구전문타운’을 조성해 스포츠 기반 시

설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와 연계한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함평/전광훈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에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픈 커피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종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시공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GS건설

시공 (주)한화/건설

시공 HDC엔지니어링

062) 607-8338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 창단 1년 만 전국대회 첫 우승!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장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서 2024년 3월 창단 후 1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25 화성특례시장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는 총 134개 팀, 2천5백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로 새싹, 꿈나무, 유소년, 주니어 등 총 7개 리그로 나눠 진행됐다.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은 이번 대회에서 유소년 리그(5학년 이상), 꿈나무 리그(5학년 이하)에 참가했다.

유소년 리그는 22강에서 수원 장안구, 16강에서 KT 위즈를 차례대로 꺾고 8강에 진출했으나 전통 강호 휘문아카데미에 4:2로 아쉽게 역전패했다.

꿈나무 리그는 8강전에서 의정부 경민을 12:5, 4강전에서 빅드림을 상대로 10:6으로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HBC에 1회 말 2점을

실점한 후 3회 말 1점 만회에 그치며 HBC에 끌려갔지만 5회 초에 7득점을 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5회 말에 3실점으로 막으며 8:5로 승리해 창단 첫 우승을 차지했다.

HBC 유소년 야구단은 매년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팀으로 올해 3월 횡성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서 우승했던 팀이다.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은 지난 3월 ‘제10회 순창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이후 3개월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야구 불모지인 완도에서 이뤄낸 큰 성과이며 야구 유망주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됐다.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은 취미반/육성반/선수 진학반 회원을 상시 모집 중에 있으며, 관련 문의는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으로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 육성 지원」을 선정하여 기부금을 모금 중이다.

완도/강선우 기자

HALL OF FAME

K LEAGUE

K리그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 후보 20명 발표... 故 유상철 포함

19~27일 팬 투표... 황선홍·이운재·데얀 등 후보 올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 현역자 후보 20명의 명단을

시즌 베스트11, 시즌 MVP 수상 등 입후보 기본 조건을 충족한 은퇴 선수 230여 명을 대상으로 논의를 거쳐 선수 부문 현역자 후보를 20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K리그 명예의 전당 입회자 선정은 2023년 K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한국프로축구를 빛낸 인물들의 공헌을 기리고, 그들의 발자취를 역사에 남기기 위해 시작됐다.

선수(STARS), 지도자(LEDERS), 공헌자(HONORS) 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2년마다 현역자를 선정한다.

올해 선수 부문은 K리그 역대 최고의 선수 4명을 선정해 현역할 예정이다.

20명의 후보에는 고정훈, 김도훈, 김병지, 김은중, 김주성, 김현석, 데얀, 라대, 박경훈, 사사, 서정원, 신익순(사리체프), 고(故) 유상철, 윤상철, 이운재, 이태호, 정용환, 최강희, 최진철, 황선홍(이상 가나다 순)이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